

# 개혁개방 이후 연변지역 언어사용의 변화\*

맹주역, 김외연\*\*

## <目 次>

1. 서론
2. 발음상의 변화
  - 1) 중국어의 영향
  - 2) 한국어의 영향
3. 어휘상의 변화
  - 1) 중국어의 영향
  - 2) 한국어의 영향
4. 문법상의 변화
  - 1) 중국어의 영향
  - 2) 한국어의 영향
5. 결론

## 1. 서론

1978년 중국의 개혁개방은 중국 역사의 한 획을 긋는 대사건이었다. 이를 통해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 큰 변화가 있었으며, 이런 사회적 변화는 시기별로 중국어에 사실적으로 반영되었다. 이러한 중국의 사회적, 언어적 변화는 중국 연변지역의 조선족이 사용하는 언어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조선족은 약 100년 동안 중국에 거주하면서, 민족의 언어와 문자를 유지하고 있으며 민족언어에 관한 연구도 매우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이런 조선족은 대부분이 한국어<sup>1)</sup>와 중국어

\* 이 연구는 2014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어대학 중국학부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1) 북한말도 한국어와 같은 것으로 간주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방언적 차이를 인정하며 조선

가 함께 쓰이는 환경에서 한중 이중언어의 사용자(bilingual)가 되었다. 본고는 중국 개혁개방 이후 연변지역의 조선족이 사용하는 언어를 연구대상으로 변이실태를 고찰하고 그 변화의 양상과 원인, 배경을 분석하고자 한다.

중국 조선족이 사용하는 언어는 한중 이중언어 환경에서 나타난 언어 변이로서, 사회언어 현상이다. 본고에서는 주로 두 가지 측면에서 조선족이 사용하는 언어의 변화를 다루고자 한다. 첫째는 중국어 내부의 변화가 조선족의 언어에 미친 영향이다. 중국의 표준어는 중국에서 '보통화(普通話)'라 불린다. 이중언어 환경에서 보통화는 자연스럽게 우세 언어 역할을 하기에 소수민족이 사용하는 언어에 영향을 주기 마련이다. 개혁개방 이후 30년 동안 중국어 자체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런 변화는 조선족의 언어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둘째는 한국어가 조선족 언어에 주는 영향이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한중 양국은 다방면으로 활발하게 교류를 진행하였다.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중국으로 진출하였고, 이에 따라 한국 사람들이 중국으로 이주하여 거주하게 되었다. 이러한 한중 관계로 말미암아 같은 언어의 다른 변이형이 자주 접촉하는 언어 환경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언어환경은 조선족이 사용하는 조선어에 큰 영향을 끼쳤다.

맹주역(1990)에서는 20세기 90년대 이전의 조선족 언어실태와 여러 변이가 생겨난 원인을 연구하였다. 본고는 이로부터 후속적으로 발생하였던 변화상을 시간축의 연장선상에서 연변지역의 조선족이 사용하는 언어의 변이의 변화양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사회언어학<sup>2)</sup> 각도에서 개혁개방 이후 조선어의 발음, 어휘, 문법 등의 변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즉 객관적으로 당대 연변 지역의 언어실태를 관찰하고 연구하고자 한다.

족의 이민 초기 단계에는 북한 말의 방언적 요소의 영향이 더 컸을 것으로 추정한다. 북한 말을 북한에서는 '조선어' 혹은 '조선말'이라고 하는데, 이는 조선족의 언어인 '조선어' 혹은 '조선말'과 명칭상 일치하나,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확연히 대별되고 한국의 한국어와 본질적으로 같은 말이다.

2) 사회·문화적인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는 화자들의 구체적인 언어 사용을 조사·분석함으로써 언어 변이와 사회적 요인과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 발음상의 변화

연변지역의 조선족이 사용하는 언어는 두 가지 언어가 서로 접촉하는 과정에서 상이한 언어의 영향으로 서로 다른 발음 변이를 수반한다. 발음 변이는 연변지역의 조선족 언어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러한 변이는 일반적으로 구어 형식에서 많이 나타난다.

### 1) 중국어의 영향

중국어의 영향으로 생겨난 발음변이는 중국어가 우세한 이중언어 사용자에게서 발생 가능성이 높고, 노년층보다 청소년에서 상대적으로 빈번하게 일어난다. 또한 조선족의 집거지구보다는 조선족과 한족(漢族)의 산거지구에서 많이 나타난다.

#### (1) 중국어의 영향이 줄어든 경우

개혁개방 이전과 초기에는 받침을 탈락시키는 경우가 많았었다. 예를 들면, ‘이것(igeot)<sup>3)</sup>’을 ‘이거(igeo)’로, ‘빨리(ppalri)’를 ‘빠리(ppari)’로, ‘시집가다(sijipgada)’를 ‘시지까다(sijiggada)’로 발음하는 현상들이다. 이러한 발음변이는 중국어의 음절 유형의 특징에서 관련성을 찾을 수 있다. 중국어의 음절 유형을 살펴보면, 대부분 모음으로 끝나는 개음절이며 자음으로 끝나는 폐음절의 말음자음은 /n/, /ŋ/ 두 종류뿐이다. 위 발음변이가 생겨난 이유는 바로 중국어 음절이 대부분 모음으로 끝나는 음절 구조의 영향이다.

그러나 한중 수교 이후,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연변으로 진출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연변에서 거주하게 되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연변 지역의 조선족들은 한국어와의 접촉이 늘게 되는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게 되었고, 이러한 원인으로 받침이 탈락하는 발음 변이는 감소하게 되었다.

3) 2절에서 괄호( ) 안의 알파벳은 한국어 로마표기법이다. 이하 ‘(로마표기법)’으로 표시.)

## (2) 중국어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 경우

## ① 연음현상이 실현되지 않는 현상

조선어에는 앞의 음절에 말음자음이 있고 뒤의 음절에 두음자음이 없는 경우, 연속발화 중 앞의 음절의 말음자음이 뒤의 음절이 두음자음 자리로 밀리어 발음되는 연음법칙이 있다. 이러한 연음법칙은 조선어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연변지역의 조선족들이 아래 몇 개 단어를 발음할 때에는 연음법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예를 들면, '심양', '남양'과 같은 단어를 연음법칙에 따르면 '시양', '나양'으로 발음해야 하지만 '심양', '남양'으로 발음하는 경우가 있다.

위 발음 변이가 생겨난 이유는 중국어의 음절 경계가 분명한 발음습관의 영향이다. 일반적으로 중국어의 이음절 단어에서 뒤 음절이 두음이 모음일 경우 앞 음절의 말음자음은 뒤 음절을 침범하지 않고 뒤 음절의 음가를 온전하게 유지시켜 준다. 중국어의 이러한 발음습관은 조선족들의 언어에서 연음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변이형이 생겨나게 하였고,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 ② 받침이 있는 단어에 음절이 첨가된 경우

예를 들면, '잎(ip)'을 '이파리(ipari)'로, '오줌(ojum)'을 '오지무(ojimu)'로, '아들(adeul)'을 '아더리(adbeori)'로 발음하는 변이형이다.

중국어에도 /p/, /m/ 등의 음소가 있기는 하나 말음자음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말음으로 쓰이는 자음은 /n/, /ŋ/으로 국한된다. 따라서 중국어에서 외래어의 음절을 표기할 때 한 음절(1 개의 한자)로는 전사할 수 없어서 한 음절의 전사에서 누락된 말음자음을 두음자음이 같거나 유사한 음절을 추가하여 보완한다. 예를 들면, 'tank'를 '坦克'/tank'x/로, 'jeep'를 '吉普'/tcip'u/로 전사한다. 중국어에서 외래어를 차용할 때, 말음자음의 부족으로 말음자음의 전사를 위한 음절을 추가하는 습관이 있다. 이러한 습관이 조선어에서 받침이 있는 단어에 음절을 첨가하는 발음 변이가 생겨나게 되었다. 또한 이 변이형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존재한다.

## 2) 한국어의 영향

1992년 한중 수교이래, 한중 양국은 경제 협력, 문화 교류 등 여러 방면에 걸쳐 우호적인 관계와 지속적인 발전을 유지해왔다. 양국의 교류가 빈번해짐에 따라 한국과 중국의 연변지역의 언어도 자연스럽게 접촉하게 되었고, 연변지역의 조선족이 사용하는 언어도 한국어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 (1) 한국어의 영향으로 새롭게 나타난 변이형

#### ① 구어에 두음법칙의 출현

두음은 단어의 첫소리를 말한다. 두음법칙은 한국어 음운학의 한 규칙으로서, 단어 첫소리에 올 수 없는 자음에 대한 법칙으로, ‘ㄴ’ 두음법칙과 ‘ㄷ’ 두음법칙이 있다. 우선, ‘ㄴ’ 두음법칙이란, 단어 처음에서 ‘ㅣ’로 시작하는 모음 앞에는 첫소리에 ‘ㄴ’이 오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즉 모음이 ‘ㅣ, ㅑ, ㅓ, ㅕ, ㅗ, ㅛ’일 때 ‘ㄴ’은 첫소리에 나타나지 못한다. 다음으로 ‘ㄷ’ 두음법칙이란, 단어 첫소리에 ‘ㄷ’이 오지 않는 법칙을 말한다. 한국어에서 첫소리에 나오는 ‘ㄷ’은 반드시 ‘ㄴ’으로 바뀐다. 몇몇 외래어나 새로 생긴 말 중에는 첫소리에 ‘ㄷ’을 쓰기도 하지만 이것은 예외적인 현상이다. 또한 어떤 단어는 ‘ㄷ 두음법칙’과 ‘ㄴ 두음법칙’ 두 가지가 적용되기도 한다. 이때는 먼저 ‘ㄷ 두음법칙’의 영향을 받은 다음에 다시 ‘ㄴ 두음법칙’의 영향을 받는다.<sup>4)</sup> 예를 들면,

로동(rodong)→노동(nodong)  
 녀자(nyeoja)→여자(yeoja)  
 류행(ryuhaeng) → 뉴행(nyuhaeng)→ 유행(yuhaeng)

이러한 두음법칙은 북한, 혹은 중국 조선어의 규범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한국어의 영향으로 조선족의 구어에는 점차 두음법칙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 ‘로동’을 ‘노동’이라고 말하거나, ‘녀자’를 ‘여자’로 말하거나, ‘류행’을 ‘유

4) 이계성: 『글쓰기를 위한 4천만의 국어책(초판)』, 들녘, 2006, 384~386쪽.

행'이라고 말하는 현상이 나타났고 다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② 의문문의 억양이 상승한 경우

일반적으로 조선어에서 의문문은 하강하는 억양이다. 예를 들면:

“밥 먹었습까?↘”  
“요즘 바쁨까? ↘”

하지만 한국어의 영향으로 의문문의 억양은 하강조에서 점차 상승조로 변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밥 먹었어요? ↗”  
“요즘 바빠요? ↗”

위 예문을 살펴보면 억양의 변화뿐만 아니라 어미의 변화도 발견할 수 있다. 어미의 변화는 4장 2절에서 상세하게 다루도록 한다.

(2) 한국어의 영향으로 변이형이 감소한 경우

① 받침을 탈락시키는 현상이 줄어든 경우

본고의 2장 1절에서 조선족들이 사용하는 언어에는 받침을 탈락시키는 현상이 존재한다고 언급하였다. 하지만 한중 양국의 교류가 빈번해 짐에 따라, 받침을 탈락시키는 변이형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2장 1)의 (1) 예문 중에서 ‘이것’을 ‘이거’라고 부르는 변이형을 제외한 나머지 예문들은 받침을 탈락시키지 않았다. 따라서 한국과의 빈번한 접촉으로 인하여 조선족이 사용하는 언어의 발음 변이가 줄어들었다.

② 조선어에 없는 음소가 발음되는 현상이 줄어든 경우

한중 양국의 수교 이전에 조선족이 사용하는 언어에는 조선어에는 없는 음소가 발음되는 현상이 존재하였다. 하지만 한국어의 영향으로 이런 현상이 현저하게 줄

어 들었다.

예를 들어, 수교 이전의 조선족이 사용하는 언어에는 /f/, /s, /tʃ, /tʃ/ 등 음소를 찾아볼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두부[tupu]'를 [tufu]로, '리발사[ripalsa]'를 [rifalʃa]로, '부너[punjə]'를 [funjɻ]로, '중국[tʃuŋkuk]'을 [tʃuŋkuk]으로, '쌍둥이[s'aŋtuŋji]'를 [ʃaŋtui]로, '사탕[sat'aŋ]'을 [ʃat'aŋ]으로 발음하고 있었다.

현재 조선족에서 일부분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의 구어에서는 이러한 변화상을 찾아볼 수 없었다.

### 3. 어휘상의 변화

일반적으로 한 언어의 변화 중 어휘의 변화가 가장 빠르고 폭넓게 진행된다. 중국 연변지역의 언어가 이중언어 환경 속에서 생겨난 변이도 어휘의 변이가 가장 두드러진다. 중국어와 한국어의 영향으로 조선어 어휘의 새로운 변이형이 생겨났다.

#### 1) 중국어의 영향

서로 다른 민족들의 접촉과정에서 언어의 접촉은 필연적이다. 중국어는 중국의 공용어로서, 조선어한테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연변 지역에서 생활하는 조선족과 중국어의 접촉적은 직접적이고 자연스러운 접촉이다. 언어 접촉에서 제일 직접적이고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 어휘의 변이이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생활 등 여러 면에서 커다란 발전을 이룩하였다. 따라서 새로운 사물과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그에 따라 대량의 신조어가 생겨나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중국 사회의 여러 방면의 발전을 반영하여 준다. 본고에서는 개혁개방 이후 생겨난 신조어를 두 가지로 분류하였다. 한 가지는 중국 국내에서 새로 만들어진 어휘, 다른 한 가지는 각종 차용어, 즉 홍콩, 마카오, 유럽, 미국 등에서 차용된 어휘이다. 조선족이 이러한 신

조어를 반영하기 위하여 주로 직접차용, 간접차용과 번역 등 방법을 채택하였다. 번역 방법으로 단어를 수용한다는 것은 중국어 특유의 어휘를 조선어로 번역하여 사용한다는 것을 일컫고, 새로운 어휘를 수용함에 있어 차용과 번역을 혼합하는 복합형식도 존재한다.

본고에서 예를 든 신조어는 「중국 개혁개방과 신조어」(최윤경, 2009), 「현대 중국어의 신조어 연구-개혁개방 이후 신조어의 생성방식을 중심으로」(오윌석, 2005), 「현대중국어 신조어 연구-1990년 이후 사회현상과 관련하여」(진주연, 2003), 「중국어와 신조어」(강춘화, 2000), 「現代漢語詞典2002增補本動詞新語考査」(丁榮, 2008)에서 발췌하였고, 기술의 편리를 위하여 일일이 밝히지 않는다.

#### (1) 직접차용

조선어가 중국어를 차용하는 방식은 한국어가 영어 혹은 불어를 차용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즉 중국어의 발음을 직접적으로 조선어로 차용하는 방식으로 중국어 발음형식에 근거하여 중국어 어휘를 차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어휘는 중국어 사회 문화와 연관성이 깊으며, 문어 형식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구어 형식에서만 나타난다. 중국 신조어를 직접적으로 차용한 예는 다음과 같다.

1. 퉁차(動車) / (고속철도 아래 등급의 속도로 운행되는 급행열차)
2. 꼬티에(高鐵) / (고속철도)
3. 차이썬(彩信) / (MMS)
4. 다공(打工) / (아르바이트)
5. 웨이웨이(回歸) / (귀환하다, 되돌아가다)
6. 헤이차(黑車) / (불법 영업 차량)
7. 샹시우르(雙休日) / (주말, 주 5일제 근무제에서의 이틀 휴무)
8. 스잉예(試營業) / (시험적으로 영업해보다, 시험 영업하다)
9. 칭바우(承包)하다 / (청부 받다, 도맡다, 책임지다)
10. 쟡왕(上網)하다 / (인터넷을 하다, 인터넷을 연결하다)

위의 예들 중 일부는 문어로 한글로 전사표기하기도 하나, 대체로 문어에서는

이런 직접차용은 적고 구어에서 주로 나타나서 정형화된 전사표기의 형태가 없다. 굳이 적을 경우 다양하게 표기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중국어 신조어는 조선어에는 대응 형식이 없다. 설사 있다 할지라도 자주 쓰이지 않는다. 위 예문을 살펴보면 중국어 발음을 그대로 차용하여 조선어의 어미와 혼용하는 현상도 나타난다. 또한 외래어를 차용하는 데 있어 직접 차용하는 방식을 사용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1. 헤이커(黑客) / (해커)
2. 차우여우위(炒魷魚)/ ((회사에서) 찰리다)
3. 쉐비(雪碧) / (스프라이트)
4. 쿠(酷) / (멋있다)
5. 커룽(克隆) / (복제)
6. 인터넷(因特網)/ (인터넷)
7. 다띠(打的) / (택시를 타다)
8. 웨이보(微博) / (블로그)
9. 두어메이티(多媒體) / (멀티미디어)
10. 파우푸(泡芙) / (퍼프)

위 예들에서 4, 5 번 예를 제외하면 조선어에서 대응하는 어휘 형식이 없다. 이렇게 차용된 어휘들은 구어에서 많이 쓰인다. 일상생활에서는 조선어의 어순을 지키는 조건 하에 사이사이 중국어 단어 직접차용 형식을 빌어서 발화한다. 예를 들어:

- A: 재 오늘 쿠(酷)하게 입었제?  
(酷: 멋있다)
- B: 근데 내일부터 못 나오테. 차우여우위(炒魷魚) 당했대.  
(炒魷魚: (직장에서)해고되다)

## (2) 간접 차용

간접차용이란 한자의 독음을 조선어 독음으로 전사는 방식을 일컫는다. 독음을

전사하는 차용법은 중국어 영향에 의한 어휘 변이의 가장 주된 원천이어서 이 방법에 의하여 생성된 변이는 양적인 면에서 어휘 변이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또한 구어는 물론이고 문어 형식의 제약을 받지 않아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생겨난 원인은 조선어의 한자어 형성과 연관성이 깊다. 조선어의 한자어는 대부분 중국어와 일본어에서 유래되었고, 고대로부터 조선어에서 한자를 읽는 전통적인 독음이 정착된 후 중국어와 일본어의 어휘를 차용함에 있어 전통독음으로 전사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한자로 구성된 외래어는 독음만 전사하면 조선어 속에 용해되었고, 가장 보편적이고 편리한 방식이어서 조선어 어휘의 절반을 훨씬 넘게 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조선족은 전통독음을 전사하는 방식을 충분히 활용하여 중국어 신조어를 조선어 어휘 체계로 수용하였다. 이렇게 전통독음으로 전사한 어휘들은 현재 규범화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일부 어휘들은 사전에 수록되었다.

조선어가 중국어 신조어를 차용하는 데 있어 제일 광범위하게 쓰이는 방법이 바로 간접차용 방식이다. 예를 들면:

1. 改革開放 - 개혁개방 / (개혁개방)
2. 綠色食品 - 녹색식품 / (무공해식품)
3. 韓流 - 한류 / (한류)
4. 自卑感 - 자비감 / (자격지심, 콤플렉스)
5. 食品街 - 식품가 / (먹자골목)
6. 美食街 - 미식가(거리) / (맛집 거리)
7. 傢具城 - 가구성 / (가구상가)
8. 服裝 - 복장 / (패션/ 의류)
9. 朝陽產業 - 조양산업 / (서서히 떠오르는 태양처럼 발전 가능성이 있는 신흥 기업)
10. 希望工程 - 희망공정 / (희망 프로젝트: 중국 청소년 발전 재단이 발기한 것으로, 모금과 기증을 통해 빈곤 지역의 학업을 중단한 아동을 돕기 위한 조치와 활동. 아동은 국가의 희망이라는 의미에서 유래된 명칭.)

위 예문들은 중국어 어휘의 독음을 한국어(조선어) 전통독음으로 전사한 것이

다. 이러한 차용방식은 중국어 발음 그대로 옮겨온 것이 아니라 독음을 가공한 간접차용을 한 것이다. 이렇게 간접차용을 한 어휘들은 한국어와 음운 외형상 차이가 없기 때문에 청각적으로 생소함을 주지 않는다. 하지만 의사소통에 있어서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간접차용으로 만들어진 어휘들의 음운 형식은 한국어(조선어) 음운 형식이긴 하지만 한국사람 혹은 기타 지역에 거주하는 조선족이 들었을 때 앞뒤 문맥에 따라 추측하여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있기도 하나, ‘조양산업’, ‘희망공정’ 등과 같은 것은 그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다.

### (3) 번역에 의한 변이

조선족이 중국어 신조어를 수용하는 기본적인 방식은 차용이다. 하지만 번역의 방식으로 신조어를 받아들이기도 한다. 어떤 어휘들은 직접차용을 하든, 간접차용을 하든 의사소통에 있어 문제가 생기거나 의미를 연상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때 번역에 의하여 어휘를 수용하면 의사소통에 있어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 現在是嚴打期間。  
지금은 엄격히 다스리는 기간입니다.

‘嚴打’는 ‘엄격히 단속하다’라는 의미로서, 위 예문에서 중국어 신조어 ‘嚴打’를 조선어 ‘엄격히 다스리는’으로 번역한 것이다.

2. 今天我買單。  
→ 오늘은 내가 계산할게.

‘買單’은 “계산하다”라는 의미로서, ‘買單’을 조선어로 번역한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방식으로 수용된 어휘들은 구성 요소에 의하여 전부 번역한 어휘와 부분 번역한 어휘로 나눌 수 있다. 전부 번역한 예문을 보면:

1. 電飯鍋電飯鍋 - 전기밥가마
2. 電冰箱 - 전기냉장고
3. 倒賣 - 되거리장사
4. 隱私 - 개인사
5. 鐵飯碗 - 철밥통
6. 名牌 - 명품
7. 走後門 - 뒷문치기하다
8. 小康社會 - 초요사회
9. 半糖夫妻 - 주말부부
10. 洗浴中心 - 목욕탕

일부는 번역형식, 일부는 차용형식을 한 어휘들은 다음과 같다.

1. 鞋城 - 신발성
2. 打工族 - 로무족
3. 燈節 - 전등성
4. 低碳 - 저이산화탄소
5. 銀聯卡 - 은련카드
6. 培訓中心 - 양성중심
7. 服裝節 - 복장축제
8. 夜市 - 야시장
9. 出國熱 - 출국바람
10. 休閒服裝 - 레저복장

#### (4) 코드혼용과 코드교체

조선족이 한족과 오랜 시간 동안 교류하면서,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에는 중국어의 언어성분이 점차 침투하였다. 따라서 중국어는 조선족의 언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그 결과 코드(code)가 변하였다. 초기에 이러한 변화는 주로 코드혼용(code mixing)으로 이루어졌다. 코드혼용이란 주로 사용하는 언어가 있고 다른 언어가 주된 언어 속에 포함되어 두 가지 혹은 두 가지 이상의 언어가 섞여서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를 말한다.<sup>5)</sup> 예를 들면:

5) 左燕如: 「當代社會用語中的語碼混用現象探析」, 『作家』第16期, 2011, 158쪽.

1. 오늘 몇시에 쌍반(上班)하니?
2. 내가 칭커(請客)하마.
3. 이 환단(傳單) 좀 파(發)해주게?
4. 웨비(雪碧) 마시게?
5. 오늘 집에 가서 영화 샤자이(下載)하려고.
6. 북경에서 고우티에(高鐵)타고 왔지무.
7. 나는 저 휘귀텐(火鍋店)에서 다궁(打工)해.
8. 명이는 왕바(網吧)에 뭘 하러 갔니?
9. 걸어가기 싫다. 다디(打的) 안 하계?
10. 저 윈젠(文件) 띠(遞) 해 주게?

위 예문들은 한국어의 표현방식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1. 오늘 몇 시에 출근해?
2. 내가 널게(살게).
3. 이 전단을 좀 나누어 주겠니.
4. 스프라이트 마실래?
5. 오늘 집에 가서 영화 좀 다운로드하려고.
6. 베이징에서 고속철도 타고 왔어.
7. 나는 저 샤브샤브 가게에서 아르바이트 해.
8. 명이는 PC방에 뭘 하러 갔니?
9. 걸어서 가기 싫다. 택시로 갈가?
10. 저저 물건 좀 건네주겠니?

최근 조선족이 말할 때 전체 문장을 중국어로 바꾸어서 말하는 현상이 보편적으로 되었다. 즉 바꾸어 말하면, 코드혼용이 코드교체(code swiching)로 바뀌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변화는 잡거지역 조선족의 언어에서 더욱 선명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면:

1. A: 나 오늘 짜뻘(加班)해서 너무 레이(累)해. 晚上喝一杯.  
(나 오늘 야근해서 많이 피곤한데 저녁에 한 잔 할래?)  
B: 좋아.
2. 상황: 연변지역의 한 조선족이 자기소개를 하고 있다.

“안녕하십니까? 나는 연변에서 주(住)하고 있고, 씨찬팅(西餐廳)에서 썬반(上班)한다. 썬반(上班)한지 5년 되었고, 지금은 정리(經理)이다. 집에 딸이 하나 있는데, 자이(在)베이징(北京) 상 따쉬(上大學)한다. 我以她爲自豪, 她長得也漂亮, 學習也很好……謝謝大家。”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변에 살고 있고요, 현재 레스토랑에서 출근하고 있습니다. 출근한 지 5년 되었고, 지금은 지배인입니다. 저에게는 딸이 하나 있는데 현재 베이징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제 딸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생김새도 예쁘고 공부도 잘하고…… 감사합니다.)

예문 1에서 A가 말한 두 번째 문장과 B의 대답, 예문 1의 자기소개는 코드교체 현상이다. 1, 2와 같은 발화는 연변지역의 일상생활에서 보편적으로 존재한다. 코드혼용 현상은 연변지역에서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현상이다. 그러나 점차 코드교체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이다.

## 2) 한국어의 영향

한국어가 조선어 어휘에 대한 영향은 주로 외래어의 차용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국어 어휘의 일부는 영어, 불어 등 언어의 어휘를 직접 차용한 것이다. 즉 영어나 불어 등 언어의 어휘를 한국어로 표기한 것이다. 한중 수교 이전에 조선어에서는 외래어 사용이 많지 않았다. 반면에 수교 이후, 조선어에서는 외래어 사용량이 점차 증가하였다. 한편 중국어에서도 많은 외래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조선어에서 외래어를 차용하는 방식은 한국어와 같았다. 또한 조선어가 신조어를 수용하는 데 있어, 중국어가 외래어를 차용하는 방식을 따르기도 하였다.

### (1) 중국어에서 유래된 어휘가 한국어의 외래어로 대체된 경우

한중 수교 이전, 조선족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어휘는 중국어의 차용이거나 조선어 고유 형식이었다. 하지만 수교 이후, 일상생활에서 조선족은 점차 한국어의 외래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면:

1. 電視 → 뎨스, 뎨스지 → 텔레비전('television'에서 유래)
2. 塑料 → 쥘료 → 플라스틱('plastic'에서 유래)
3. 遙控器 → 요쿵치 → 니모콘('remocon←remote+control'에서 유래)
4. 煤氣 → 매치 → 가스('gas'에서 유래)
5. 打印 → 인쇄 → 프린트('print'에서 유래)
6. 遊戲 → 유희 → 게임('game'에서 유래)
7. 手機 → 손전화 → 휴대폰 / 핸드폰('hand'+ 'phone' 한국식 영어 어휘)
8. 照相機 → 사진기 → 카메라('camera'에서 유래)
9. 大減價 → 따지엔자 → 세일('sale'에서 유래)
10. 收銀台 → 카운터('counter'에서 유래)

위 예문 중에서 조선어가 사용하는 어휘는 변화는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원래는 중국어를 직접 차용한 어휘가 한국어의 외래어를 사용한 경우 둘째, 원래는 중국어를 간접 차용한 어휘가 한국어의 외래어를 사용한 경우 셋째, 원래는 중국어의 어휘를 번역한 어휘가 한국어의 외래어를 사용한 경우이다.

## (2) 한국어의 외래어를 차용하는 방식을 사용한 경우

중국어에서 비교적 늦게 생겨난 어휘나, 외국의 영향으로 생겨난 어휘들이 있다. 조선어에서 이러한 어휘를 받아들일 때, 대부분 한국어가 외래어를 차용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조선어에서 이러한 어휘를 사용한다는 것은 한국어가 조선어에 대해 미친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 下載 - 다운로드('download'에서 유래)
2. 筆記本電腦 - 노트북('notebook'에서 유래)
3. 咖啡伴侶 - 커피프림('coffee cream'에서 와전)
4. 派對 - 파티('party'에서 유래)
5. 高爾夫 - 골프('golf'에서 유래)
6. 脫口秀 - 토크쇼('talk show'에서 유래)
7. 面膜 - 팩('pack'에서 유래)
8. 桑拿 - 사우나('sauna'에서 유래)

9. 掃描 - 스캔('scan' 에서 유래)

10. 藍牙 - 블루투스('bluetooth' 에서 유래)

위의 예들은 모두 개혁개방 이후 생겨난 신조어이다. 조선족들이 새로운 사물, 새로운 현상에 대하여 채택한 방법은 언어접촉의 환경과 가까운 대상에서 차용하거나 번역의 대응어를 찾아내다가 언어적 거리가 가까운 대상과의 접촉이 증가되자 조원을 교체하게 된 것이다.

#### 4. 문법상의 변화

문법은 언어의 3요소 중 언어변화에서 가장 안정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그 변화 속도도 가장 느리다. 문법의 변이는 어휘의 변이가 나타남에 따라 생겨나기도 하고 번역의 불완전성에 의해 생겨나기도 한다.

##### 1) 중국어의 영향

중국어가 조선어로 하여금 문법 변이가 생겨나게 한 원인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어휘 변이에 의해 부가적으로 생성된 것이다. 즉 어휘의 변이가 어휘적 의미 변화에 국한되지 않고 품사가 달라지는 것과 같은 통사적인 의미의 변화가 생기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문형을 바꾸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둘째, 번역의 불완전성에 의해 나타난다. 이것은 언어의 부분적 형식의 전환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다 하여도 전체 문장에서는 조화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중국어가 조선어 문법에 대한 영향은 일부 특수 문형에 국한되어 있다. 문법의 변이로 생성된 문장은 의사소통에 큰 지장은 없으나 조선어에서 습관적으로 쓰이는 문형이 아니다. 예를 들면:

(1) 의문사를 반복하는 문형을 사용하는 경우

1. 누가 늦게 오면 누구에게 별주를 먹여라.  
→ 늦게 오는 사람에게 별주를 먹여라
2. 무엇이 차려지면 무엇을 먹는다.  
→ 차려지는 대로 먹는다.
3. 몇 개달라면 몇 개를 준다.  
→ 몇 개건 달라는 대로 준다.
4. 메도르에 얼마 나오면 얼마 받지요.  
→ 미터기에 나오는 대로 받지요.

위의 표현들은 “要幾個, 給幾個”와 유사한 문형으로서, 중국어의 연쇄복합문을 모방하여 조선어에서 사용되지 않는 표현이다. 중국어의 이런 표현은 의문사를 반복하여 뒤의 의문사가 앞의 절에서 서술된 내용을 그대로 포함한다. 화살표 뒷부분에 표시된 것이 조선어 습관에 맞는 표현이다.

(2) 중국어의 품사로 전이시켜 사용한 경우

조선어 단어에는 없는 품사나, 중국어 동형 단어 속에 있는 품사를 조선어 단어에 부여하여 변이형을 생성하였다. 예를 들면:

1. 그의 삶은 얼마나 광채로운가.(영광스러운가)
2. 나와 윤이는 분별하여(각각)선물을 했다.

예문 1의 ‘광채’라는 단어는 조선어에서 명사이다. 하지만 중국어에서 ‘光彩’는 명사로도 쓰이고 형용사(‘떴떴하다, 영예롭다’의 의미)로도 쓰인다. ‘광채롭다’는 중국어의 ‘光彩’라는 형용사에 ‘롭다’를 붙여 조선어의 명사를 형용사로 전이시킨 것이다. 하지만 조선어에서는 원래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다. 예문 2의 동사 ‘분별하여’는 중국어의 ‘分別’에서 생겨난 활용이다. ‘分別’ 중국어에서 동사, 부사(‘각각’의 의미)로 쓰인다. 하지만 조선어에서 ‘분별하다’는 부사로 쓰이지 못한다. ‘분별하여’는 경우에 따라 부사어로 될 수 있지만 의미에 변화가 없는 동사의 활용형이

다. '각각'이란 의미로 활용한 것은 중국어 '分別'라는 부사를 조선어로 전이시킨 결과이다.

## 2) 한국어의 영향

### (1) 한국어의 형식으로 변화한 경우

한중 수교 이후, 양국의 접촉은 조선어 문법에 변화를 일으켰다. 특히 경어법의 사용에 있어 큰 변화가 생겼다.

조선어와 한국어는 경어법이 발달한 언어이다. 예를 들면 상대경어법에서도 6가지 등급으로 나눌 수 있다. 높은 등급으로부터 낮은 등급은 차례대로 '합쇼체, 해요체, 하오체, 하게체, 해체, 해라체' 등이 있다.<sup>6)</sup> 하지만 두 언어가 구어에서 자주 사용하는 등급은 다르다.

한국어에서,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자주 사용하는 경어법은 '하게체'이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자주 사용하는 것은 '해요체'이다. 예를 들면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이 드레스 구경 좀 하게.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아무래도 비가 오겠어요.

이에 반해 조선어에서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는 '하오체'를,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는 '합쇼체'를 사용한다. 예를 들면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이거 좀 보소.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식사하셨습니까?

하지만 한중 양국의 접촉이 빈번해짐에 따라 조선족들이 사용하는 경어법은 큰 변화가 생겨났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자주 사용하던 '합쇼체'가 점차 '해요체'로 변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젊은 사람들의 언어변화는 고령자들의 언어변화보

6) 이익섭(2005:219): 『한국어문법』,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05, 219쪽.

다 속도가 빠르다. 조선족의 젊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의 언어와 부단히 접촉하면서 이러한 변이가 생겨나게 되었다.

## (2) 중국어의 영향이 줄어든 경우

수교 이전, 조선족들이 사용하는 언어에서는 보편적으로 다음과 같은 현상이 존재하였다. 중국어에서 접미사 '性'을 붙여 만든 단어는 명사와 형용사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다. 하지만 조선어에서 '성'을 붙인 동형단어는 명사 성질만 존재할 뿐, 형용사 성질은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조선족은 이러한 단어들에게 형용사 성질을 부여하기 위하여 '적'이라는 어미를 붙였다. 즉 명사에 '성'이라는 어미와 '적'이라는 어미를 동시에 붙여 형용사를 만드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

1. 과학성적인 연구
2. 대표성적인 건물
3. 주관성적인 문제
4. 대중성적인 문학

하지만 수교 이후, 이런 현상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예를 들면 :

1. 과학적인 문제
2. 대표적인 건물
3. 주관적인 생각
4. 대중적인 문학

위 예문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 환경의 변화가 언어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특히 두 언어가 밀접한 연관이 있을 때, 미치는 영향은 더욱 크다.

## 5. 결론

본고에서는 개혁개방 이후 연변지역의 조선족이 사용하는 언어의 발음, 어휘, 문법 세 가지 측면의 변이의 양상을 중점적으로 고찰하였다. 연변지역 조선족의 지역의 특수성은 한어보통화(漢語普通話)의 영향뿐만 아니라 한국어의 영향도 받게 되었다.

발음 변이, 중국어의 음성 체계는 여전히 조선어의 발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모음과 자음 등 분절음들에 대한 영향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원인은 한국어와 조선어가 부단히 접촉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어의 영향으로 일부 억양에 변화가 생겼다.

어휘 변이로는, 개혁개방 이후 중국어에는 많은 신조어가 생성된 점을 우세로 꼽을 수 있다. 이러한 신조어를 수용하는데 있어 조선어는 직접차용, 간접차용, 번역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직접 차용에 의해 생긴 어휘 변이는 코드 혼용 현상과 코드 교체 현상을 야기했다. 이중 코드교체는 최근 몇 년간 중국어가 조선어에 미친 영향의 주된 특징이다. 또한 한중 양국의 교류가 빈번해 짐에 의해 조선어가 외래어를 차용하는데 있어 한국어와 같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문법 변이는 상대적으로 미약한데, 중국어가 조선어 문법에 대한 영향은 특정한 몇 개 구문에 한하여 일어나고, 한국어의 영향은 주요하게 경어법에서 나타난다. 즉 젊은 층 조선족의 언어는 한국어로 '접근'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 〈參考文獻〉

- 맹주억, 「중국의 한중이중언어 상황과 중국어의 영향」, 『시민인문학』 no.1, 1990.  
 정경연, 「해방후 우리 나라의 조선어 규범화 사업에 대한 개관」, 『조선어문』 특간호, 조선어문잡지사, 1986년.  
 박중호, 조귀순, 최희수, 「할빈시 조선족들의 조선말 실태에 대한조사」, 『조선어학습과연구』 제3호, 1985년.

- 오월석, 「현대중국어의신조어연구 - 개혁개방 이후 신조어의 생성방식을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진주연, 「현대중국어 신조어 연구 - 1990년 이후 사회 현상과 관련하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중어중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03.
- 강춘화, 「중국어와 신조어」, 『인문과학연구』 Vol.5 No.-, 2000.
- 연변언어연구소언어연구실, 「해방후 조선어 어휘구성에 보충된 새 명사, 술어」, 『조선어학 논문집』, 중국조선어학회편집, 민족출판사, 1984.
- 동북3성 조선어문 사업협의 소조관공실편, 『조선말규범집』, 연변인민출판사, 1985.
- 이익섭, 『한국어문법』,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05.
- 이재성, 『글쓰기를 위한 4천만의 국어책(초판)』, 들녘, 2006.
- 崔元吉, 「展開多學科의朝鮮族雙語問題研究」, 『民族語文論文集』, 四川人民出版社, 1988.
- 王还, 「建國以來漢語詞彙變化及原因」, 『語言教學與研究』 第3期, 北京語言學院出版社, 1982年.
- 丁榮利, 「現代漢語詞典(2002增補本)動詞新詞語考查」, 『現代語文』 第2期, 2008.
- 林亨栽, 「朝鮮族雙語使用中的語碼轉換」, 『解放軍外國語學院學報』 6期, 2002.
- 王蓓, 「語碼轉換的心理分析模式」, 『江蘇科技大學學報』 第3期, 2011.
- 左燕茹, 「當代社會用語中的語碼混用現象探析」, 『作家』 第16期, 2011.
- 朴锦海, 「從語言接觸看漢語對朝鮮語的影響」, 『外語教育教學』 第4期, 2010.
- 邊莉娜, 「從詞彙角度看漢語對中國延邊地區朝鮮語的影響」, 『青年文學家·語言研究』 第20期, 2012.

#### 〈中文提要〉

中国改革开放以来, 经济持续快速增长, 综合国力日益增强, 社会各方面都经历了巨大的变化。社会变化自然反映到语言上, 中国延边地区朝鲜族的语言也不例外。朝鲜族居住在中国已有100余年的历史, 多数仍然保持着本民族的语言和文字, 成为韩汉双语者(bilingual)。本文以中国改革开放以来延边地区朝鲜族所使用的语言为研究对象, 探讨其变化的面貌、历程和背景等情况。

中国朝鲜族使用的语言是在韩汉双语环境中产生的语言变体, 是一种社会语言现象。本文从两方面来分析朝鲜族的语言使用的变化。首先是汉语的变化对朝鲜族语言使用情况的影响。中国官方语言是汉语普通话, 汉语自然在双语地区成为了优势语言, 必然对少数民族使用

的语言产生影响。三十多年来汉语本身经历了一些变化，其变化也引起了朝鲜族语言使用情况的变化。其次是韩语对朝鲜族语言使用情况变化的影响。1992年韩中建交以来，两国在各方面进行全面的交流，大量的韩国企业和人员到中国大陆地区来常驻，延边地区也不例外，自然形成了同种语言的不同变体经常接触的环境。在这种语言接触的情况下，大部分朝鲜族使用的朝鲜语受到了韩语的影响。

關鍵詞：改革開放、延邊地區、語言變化、語音變體、詞彙變體、語法變體、語碼

이 논문은 2015년 1월 15일에 접수되어 2015년 2월 5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5년 2월 15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